중량 줄인 순살 원래대로… 신뢰 '누더기'된 교촌

국감서 '꼼수' 값 인상 혼쭐… 내달 20일부터 원상 복귀
3종 무게 500g→700g으로, 반반은 600g으로 되돌려
본사 일탈에 고객 등 돌려… 애꿎은 점주들만 피해

교촌치킨이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원상 복구를 결정했다.

'프리미엄 치킨' 이미지를 내세워온 교촌이지만 이번 사태로 소비자 신뢰와 가맹점 현장의 피로도가 동시에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는 간장순살, 레드순살, 반반순살(간장+레드) 등 3종의 중량을 기존 500g에서 700g으로, 반반순살(허니+레드)은 600g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닭다리살과 안심살을 섞어 판매하던 원육 구성도 다시 닭다리살 100%로 복구한다. 중량 및 원육 복귀는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교촌은 또 소스 도포 방식을 기존 '버무림'에서 과거처럼 '붓으로 바르는 방식'으로 되돌리며, 최근 출시했던 마라레드순살·허니갈릭순살 등 신메뉴 10종의 판매는 중단하기로 했다.

본사는 "순살 리뉴얼 과정에서 고객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국정감사 이후 나온 조치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촌에프앤비 송종화 대표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교촌치킨이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중량을 줄이고도 가격을 그대로 받았다"며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제품 축소형 가격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원재료 공급 차질로 가맹점이 자체 조달을 시도해도 본사가 막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점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교촌을 정조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치킨 중량과 가격은 물가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을 주문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물가관계차관 회의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중량 축소를 방지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촌치킨의 이런 논란으로 가맹점주들의 매출에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교촌 가맹점주는 "본사에서 중량 복귀 방침을 들은 건 뉴스로 봤다"며 "닭값이 비싸 원가 부담이 늘더라도 주문이 줄어드는 것보단 낫다. 고객이 떠나면 매출 타격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점주는 "중량 축소 뒤 주문량이 확 줄었다"며 "다시 원상 복귀되면 여론이 좀 가라앉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본사의 조리 지침 변경에 따른 피로감도 크다. 한 점주는 "중량 조정 과정에서 다리살 대신 가슴살을 섞으면서 레시피를 새로 익혀야 했다"며 "이제 다시 다리살 100%로 돌아가면 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닭 공급난 역시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도계장이 한정된 가운데 프랜차이즈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날개 부위 공급이 특히 부족하다.

한 점주는 "닭 한 마리에 날개가 두 개뿐인데, 메뉴에는 17~18조각씩 넣어야 한다"며 "국내산만으로는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촌은 국내산을 주로 쓰지만 일부 윙 제품에는 태국산 수입육이 포함된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냉동 수입산은 피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교촌 관계자는 "이번 중량 복귀는 가맹점 협의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가맹점의 원가 부담 변화는 없다"며 "다만 이번 논란으로 가맹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방안이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주요 순살 메뉴 중량·원육 변화

자료=교촌에프앤비

메뉴	리뉴얼 전 중량·원육	리뉴얼 후 중량·원육 (9월11일)	11월20일부터
간장순살	700g(닭다리살)	500g(닭다리살+안심살)	700g(닭다리살)
레드순살	700g(닭다리살)	500g(닭다리살+안심살)	700g(닭다리살)
반반순살(간장+레드)	700g(닭다리살)	500g(닭다리살+안심살)	700g(닭다리살)
반반순살(레드+허니)	600g 레드(닭다리살) 허니(닭다리살+안심살)	500g 레드(닭다리살+안심살) 허니(닭다리살+안심살)	600g 레드(닭다리살) 허니(닭다리살+안심살)



한동훈 '재보선'·유승민 '경기지사' 부상… 野, 중도확장 주목

"韓 민심경청투어는 정치 복귀 예고편"
劉, '중도보수 대표주자' 이미지 강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요동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강성 보수' 노선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도 확장형 인물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동시에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두 사람의 행보가 겹치며 '재보선 한동훈'과 '경기지사 유승민' 카드가 야권의 복귀 시그널로 떠오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해석은 다르다. 발언의 초점이 '지자체장 불출마'에 국한되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결국 한동훈은 다시 국회로 들어올 인물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수도권 민심 이탈이 뚜렷한 상황에서 당의 중도 이미지를 회복할 적임자가 한 전 대표라는 평가도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한 전 대표는 경기 남부권에서 '민심경청 투어'를 이어가며 사실상 재보선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화성·성남·군포·평택 등 규제 지역을 돌며 신혼부부 주거난, 부동산 시장 불안, 산업정책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한 친한(親韓)계 의원은 "정치 재개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투어 자체가 정치 복귀의 예고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 전 대표의 이름은 서울시장과 인천계양 재보선 후보군에 동시에 오르고 있다. 인천계양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출발지로 여야 상징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야권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계양을에 나간다면 야권의 상징 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보수층을 향한 '강연 정치'로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다음 달 4일 인제대에서 '나는 정치를 왜 하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열며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 지난해 대선 경선 불참 이후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그가 5개월 만에 공식 무대에 다시 서는 셈이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미 선두권에 올랐다. 인천일보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17~1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임자 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20.9%로 1위를 기록했고, 한동훈 전 대표가 12.1%로 뒤를 이었다.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87.8%)와 유선전화 RDD(12.2%)를 통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중도층 확장과 청년세대 흡수를 위한 야권 전략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앞세워 중도보수의 대표주자로, 한 전 대표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대중적 정치 신인으로 각각 평가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둘이 동시에 전면에 나설 경우 야권의 세대·이념 균형이 맞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두 사람의 등판을 둘러싼 최종 변수는 장 대표의 공천 전략이다. 장 대표는 출범 이후 '당성'과 '단일대오'를 거듭 강조하며 '찬탄파(탄핵 찬성파)' 인사들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유승민·이준석·한동훈 등 비주류 인사들을 향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수도권 판세가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장 대표가 중도 확장형 인물을 다시 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8월1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5월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국회의원이 참배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새겨보는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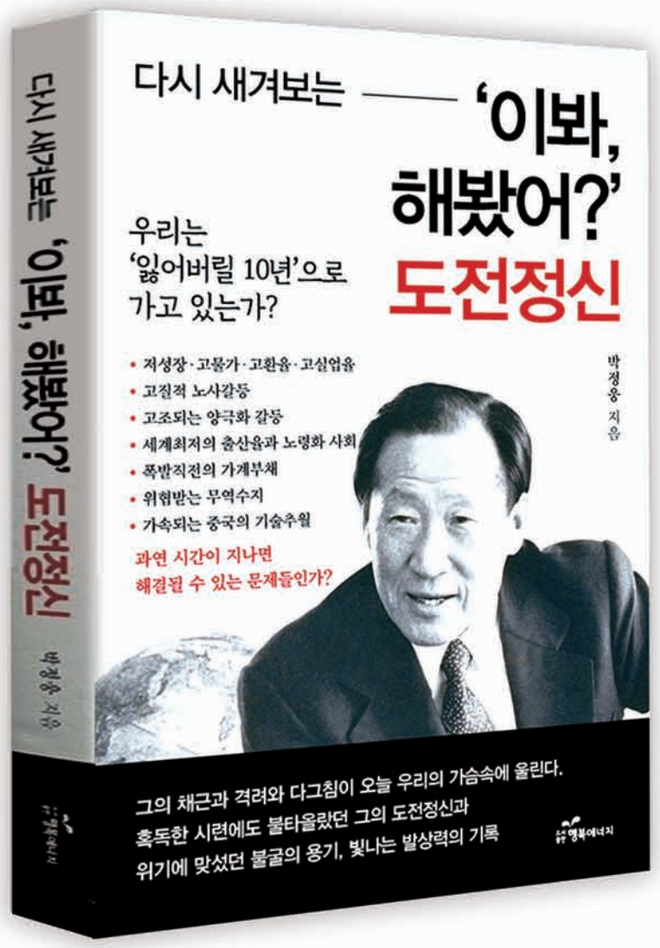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웅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01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04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전시장 조선소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06 가슴에 묻고 간 필생의 염원 통일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들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밀 담판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상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05 88서울올림픽 유치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상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02 정치쇄신, 더 잘사는 사회… 통일을 위해 던졌던 비장한 출사표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챙겼던 '큰손'과 '구두쇠'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06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교수가 본 정주영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01 정주영 · 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총수의 18번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의 건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